

가정 예배 모범

- 2021_11_07_장기중앙교회

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

▶ 함께 함께 기도 (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)

=>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,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▶ 함께 찬양 (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)

=> 내 모습 이대로

▶ 함께 읽기 (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)

=> 사사기 3:12-31

▶ 함께 묵상 (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)

1)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에훗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? 또 에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?(12-30절)

사사 옷니엘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.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.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. 그러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을 새로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. 성경은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말합니다. 성경의 원어로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구원할 사사로서 큰 약점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자, 에훗은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모압을 이겨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가져왔습니다. 우리 각자의 연약한 점은 무엇인가요?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.

2) 다른 사사들에 비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딱 한 구절, 한 문장에 나옵니다. 성경은 사사 삼갈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?(31절)

사사 에훗이 모압을 몰아낸 후 8년간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. 하지만 그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했고,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사를 보내주실 때는 대부분 그 사사가 어느 출신이고,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합니다. 또는 부름을 받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기도 합니다. 바로 앞에 에훗만 하더라도 20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, 삼갈은 31절 단 한 절로 설명합니다. 아낏의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엄청난 무기가 아닌 '소 모는 막대기'로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 큰일을 이루십니다. 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.

▶ 함께 나눔 (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)

▶ 주기도문 (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)